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희망의 꽃' 피울까

은행권 '새희망 홀씨' 대출 일제히 출시

은행들이 최근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일제히 선보이며 서민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하지만 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서민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지만 은행마다 기준금리나 금리 감면 조건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광주은행·농협 등서 담보없이 신용 대출 금리 조건 은행따라 차이 꼼꼼히 살펴야

광주은행의 'KJB 새희망홀씨대출'은 광주·전남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고객으로 대출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간소득 100% 범위 내에서 고객의 소득 수준과 기존 신용대출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도 가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등에게는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대출만기까지 연체없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고객은 이미 납입한 이자의 1%를 만기 축하금으로 돌려준다. 전남농협도 저신용·저소득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NH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을 판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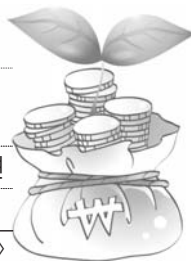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36~13.66%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각각 0.2%포인트, 신용카드, 급여이체, 청약상품 가입고객은 0.1%포인트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없이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최초약정 당시 금리에서 0.1%포인트씩 감면하여 최대 1.0%포인트 감면해 준다. 또한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고객안심공제Ⅳ' 보증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은 연 12.0~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인 연 8.0~10.0%로 낮아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다른 은행처럼 최고 2000만원이지만 기본 한도 200만원이 보장된다. 신한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1%포인트를 적



지난 9일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대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KJB새희망홀씨대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 특징

은행	특징
광주은행	·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최대 1%P 금리우대 · 대출 만기까지 연체 없을 경우 납입한 이자 1% 환급
전남농협	· 신용카드·급여이체·청약상품 가입고객 최대 1%P 금리 감면 · 대출금액 범위에서 '고객안심공제Ⅳ' 보증 무료 가입
국민은행	· 연 12~14% 확정금리 적용하나 3개월 마다 0.2%P 금리 감면
신한은행	· 아파트 관리비·공과금·급여이체 고객 금리 우대



(자료: 각 은행)

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7.5~12.5% 수준이다. 금리 우대 조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포함된다. 만기를 연장하면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는 경우 최장 5년간 연 0.2%포인트씩, 총 1.0%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장터 소식

셔츠·타이 초특가판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4일까지 8층 이벤트홀에서 '제4회 셔츠·타이 페어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닥스, 파코라반 등 총 11개의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 초특가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사은행사도 펼친다. 파코라반, 루이까포즈, 카운테스마라 등은 2만원대의 셔츠를 특보상품을 선보이며 메트로 시티, 레노마 등은 1만5000원에 넥타이를 판매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양말, 스카프, 세제 등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보습효과 높은 BB크림

아이오페는 보습효과를 강화한 비비크림 '슈퍼바이탈 엑스트라 모이스트 BB크림'을 출시한다. 이 제품에는 아이오페의 대표적인 크림제품인 '슈퍼바이탈 엑스트라 모이스트 크림'의 성분이 40%가량 함유돼 강한 보습효과를 준다고 회사는 말했다. 또 천연색소인 카큐민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색상을 연출한다고 덧붙였다. 가격 5만5000원.

패딩·점퍼 50% 싸게 판매

롯데마트는 17일까지 패딩 조끼와 점퍼 등 겨울 의류 15만점을 일반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9800~1만9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무관세 혜택이 있는 베트남에서 생산해 원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김장 담그기 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백화점 창립 31주년 축하 3대 특별이벤트를 연다. 13일 오후 3~5시 백화점 2층에서 '클래식의 향연-현악 4중주' 특별 공연을 열고, 같은 날 오후 2~5시까지 백화점 전층에서 '창립 31주년 축하 마담 조각상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노화개선 화장품 5종 선택

LG생활건강은 레티놀을 함유한 노화개선 화장품 '이자녹스 녹스스킨' 5종을 선보인다. 모이스처 스킨, 레티놀 세럼, 모이스처 에멀전, 레티놀 아이크림, 레티놀 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회사는 초기노화가 걱정되는 20대부터 주름 개선을 원하는 40대 여성층 모두를 겨냥한 제품으로 각 제품당 2만5000~3만5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췄다고 말했다.

롯데멤버스 5주년 페스티벌

롯데그룹은 그룹 통합멤버십인 롯데멤버스가 5주년 및 회원 20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3박4일 광 여행에 5000명을 무료 초청하는 등 각종 상품을 내건 '빅 플래저 페스티벌(Big Pleasure Festival)' 행사를 실시한다. 롯데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면세점, 롯데시네마, 엔제리너스커피 매장 및 롯데멤버스,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롯데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아침 식사용 우리밀 세트

파리바게뜨는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나오는 직장인을 겨냥한 '우리밀 모닝세트'를 전국 2600여개 점포에서 판매한다. 국산 밀이 들어간 잉글리시 머핀에 계란과 햄, 치즈가 들어간 '아침엔 햄 & 치즈 모닝'과 커피 또는 우유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3500원이다. 다음달 5일까지 오전 7~10시에 모닝세트를 주문하면서 SPC 해피포인트 카드를 적립 또는 사용하면 모닝세트 3차례 구매에 무료로 1회 세트를 증정한다.

서민들이자 줄이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모집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해당 업체에 신청하고,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서민들이자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칙을 알아본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가 연 40%에 육박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을 먼저 찾아볼 것을 권했다. 또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年 40% 대부업체 이용하기전 서민전용금고 먼저 찾아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대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L사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최고 금리가 연 44%지만 직접 신청 시에는 38%로 6%포인트 깎아준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

로 바꿔주는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이나 한국이지론의 환승분을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화된 금리를 적용한다"며 "일부 업체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중개수수료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은 물론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정 상한 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대출 광고는 작업비, 신용상태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연환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드립니다.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since 1982

